"모처럼 풍어인데 고기 썩어나갈 판" 목포 어민들 화났다

"모처럼 맞은 가을 조기 풍어로 어획량이 크게 늘 었지만, 비좁은 위판장 시설 때문에 제때 위판을 보 지 못해 고기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출하마저 늦어 지는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자망(그물코에 걸리게 하는 조업형태) 선주이모(63)씨는 최근 조기 풍어로 예년보다 어획량이 늘었지만, 만선의 기쁨보다는 위판 차질로 분노가 치민다. 위판장 시설이 협소해 제때 고기를 위판하지 못하는 데다 선도 유지의 필수인 얼음 공급마저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위판장 인근에서 추진되는 '삼학도 공원화 사업'과'여객선부두 확충'사업으로 그동안 어선에 공급해오던 쇄빙시설들이 철거될 예정이어서 얼음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목포시와 수협은 대책은커녕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을 사 위판시설 부족에 출하 지연 인근 삼학도 공원화 사업으로 쇄빙시설 철거…얼음대란 우려 목포시·수협 대책 마련 부심

고 있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수협이 북항에 조성 중인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로 연말 이전 하면 현재 위판장으로 사용 중인 목포시 해안동 수 협위판장은 여객선부두로 활용된다. 이에 따른 부 두 정비로 쇄빙탑 1기가 철거될 예정이고 목포항 어선의 얼음 50%가량을 공급하고 있는 A업체 쇄 빙탑도 삼학도 공원화 사업으로 조만간 철거위기를

현재 목포수협을 비롯해 민간 얼음 공급 업체 3 곳 하루 생산량은 2000여 각(1각당 130kg)이다. 그러나 북항으로 이전 하면서 자체 제빙생산 시설을 갖춘 목포수협을 제외하고 민간 업체 얼음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수협은 민간 업체 얼음 공급 중단으로 한 사리(15일) 조업에 필요한 얼음 6만각에 턱없이 부족한 2만2600각 얼음이 생산될

맞고 있기 때문이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얼음 공급 대란을 두고 한 어민은 "얼음이 없으면 출어할 수가 없는데도 목포시와 수협은 지금까지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비

목포수협이 북항으로 이전해도 위판장 부족 문제 등은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356억원의 국비와 도비를 투입해 연말 완공 예정인 서남권 친환경수 산종합지원단지 위판장이 개방형으로 냉방시설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새로 짓는 북항 지원단지 예산이 당초 보다 45%가량 삭감되면서 위판장 시설과 냉동, 냉 장 시설 등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면서 "추가 증설 과 시설 개선이 없으면 위판 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어선의 얼음 공급 부족 사태 수습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업체 생산중단 시목포 인근 얼음생산업체를 파악해 물량 확보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협과 시가 협의를 통해제빙시설 설비 확충안을 마련하고 전남도와 예산심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북항 복합 지원단지 위판장 개방형 시설부문도 수협과 협의를 통해 실온(20도 유지)에서위판이 가능한 폐쇄형 위판장으로 점차 변경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설 부족으로 어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포=박종배·박영길 기자 pjb@kwangju.co.kr



전남도의 '도시숲 조성·관리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한 '신안 도초 팽나무 명품숲길'.〈신안군 제공〉

를 받았다.

'신안 도초 팽나무숲' 대상

전남도, 도시숲 평가 ... 곡성 쌈지숲・명상숲 '최우수상'

'신안 도초 팽나무 명품숲길'이 전남 최고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됐다.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전남도가 시행한 '도 시숲 조성·관리 평가'에서 신안군이 영예의 대 상을 차지했다.

도시숲 평가는 전남도가 도시숲 조성 우수사 례를 확산하고 숲 조성 관리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각 시·군이 제출한 각 2개소의 우수 사례를 대상으로 ▲대상지 선정 적정성 ▲수목 배치 등 숲 디자인 ▲수목의 생육상태 ▲도민 과 관광객의 이용도 ▲관광자원화 기여도 등을 종합 심사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평가 결과, 신안군의 '도초 팽나무 명품숲길 (도초 환상의 정원)'과 '낙우송 수변공원'이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곡성군은 '보훈회관 녹 색 쌈지숲'과 '오산초등학교 명상숲'이 숲디자 인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차지했으 며, 순천시와 보성군, 담양군은 '우수상'에 선 정됐다.

ɔ썼더. '팽나무 명품숲길'은 신안군 도초면 지남리. 일원에 조성된 1.2km의 명품 팽나무 숲길이다. 전국 산지에 흩어진 70~100년 된 팽나무 304그루를 적극행정으로 기증받아 조성했다. 아름다운 가로숲 아래에는 수국, 애기범부채등 화목류가 어우러져 사계절 꽃이 핀 신안군의 대표 명소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

'낙우송 도시숲'은 농업용 방죽인 압해면 신용저류지를 활용해 낙우송 680그루를 심어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변공원으로 조성했다.

곡성군 녹색쌈지숲은 은 보훈센터와 연계해 무궁화를 배치하고 단풍이 아름다운 하층 식생 을 도입함으로써 색채미가 돋보인 숲을 디자인 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 오산초교 명상숲 은 소나무·주목 등 6종의 수목이 주변 숲과 연 결되는 길을 만들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순천시와 보성군, 담양군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도시숲 조성에 대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영광 백수에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11일 목포시 해안동 목포수협 위판장. 협소한 위판장에 위판을 기다리는 조기가 발디딜 틈 없이 쌓여있

다. 장시간 위판을 기다려야하는 어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간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하사리 10만㎡ 부지에 59억 투입

영광 백수에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단지가 들어 섰다.

11일 영광군에 따르면 백수읍 하사리 일원 10만 ㎡ 부지에 총사업비 59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했다.

태양광발전단지는 6.2MW 규모이며, 생산 전력량은 연 8.6GW/h로 2000여가구(가구당 월 350kW/h)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 사업에는 발전소 인근 5개 마을 1030세대의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연 8억여원의 안정적인 수익 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내년 국내 최초 공공주도형 2MW규모 '도민 발전소'와 8.4MW규모 '군민 햇빛 발전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영광군 백수 하사리 일원은 영농복합형 풍력 발



영광 백수읍 하사리에 10만㎡ 부지에 59억원을 투입해 6.2㎞ 규모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단지가 건설 됐다.

전단지(174MW)와 태양광 발전단지(154MW)가 조성돼 있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로 한국형 그린뉴딜 선도지역으로 꼽힌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

업을 추진해 1000여 군민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산업과 연 계해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 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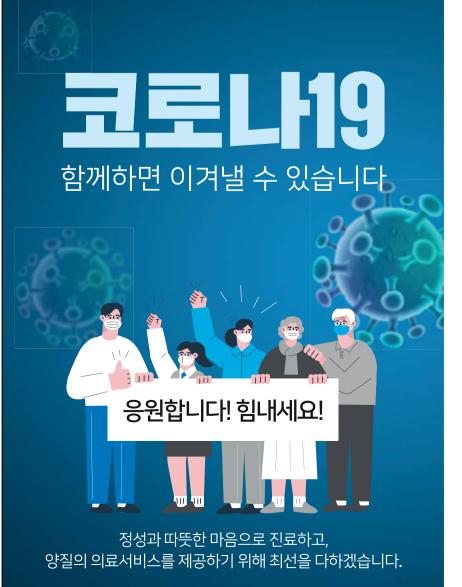
신안 병풍도 주민, 코로나 의료진에 맨드라미 꽃차 전달

신안군은 증도면 병풍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맨 드라미 꽃차 100세트를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하는 광주시간호사회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꽃차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심고 정성을 들여 기꾼 맨드라미꽃으로 손수 만들어 그 의미가 깊다. 이영란 병풍도 부녀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맨 드라미축제가 취소된 아쉬움을 딛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맨드라미 꽃차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병풍도 주민 300여 명은 전국 최대 규모(12ha) 의 맨드라미 꽃동산을 조성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치평동 1236-3)타임스퀘어빌딩 7층 T. 062-367-8889 F. 062-367-8822

